

韓中 經濟交流의 現況과 展望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經博〉

1. 中國經濟의 成長 潛在力

中國은 1978년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하면서 지난 15년간 연평균 9% 이상의 高速成長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연 13%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러시아, 東歐 등 다른 舊社會主義國家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성공 요인으로서는 中國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改革·開放을 시작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中國은 集團農場의 해체, 經濟的 權限의 地方分權化, 시장기능의 지속적 확대, 私營企業을 포함하는 각종 非國營企業의 허용,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國有企業 개혁의 추진, 각종 外資의 적극적 유치와 수출의 장려 등으로 대표되는 改革·開放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하고 농촌 공업화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는 집단농장의 해체 등 農村改革의 기여가 컸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非國營企業과 外國人投資企業의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미국 영기업은 경공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地方政府는 확대된 經濟部門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經濟成長의 에너지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中國은 아직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미 성장의 動力을 획득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高度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하는 잠재요소를 열거해 보면, 장기간 공급이 가능한 풍부한 人的·物的 資源, GNP대비 35% 이상의 높은 저축률, 5,500만 海外華僑(대만, 홍콩 포함)의 풍부한 자금과 해외시장 진출능력,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기술,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中國內 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진 외국 투자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改革·開放 이후 시장기능의 확대와 물질적 유인의 강화를 통하여 크게 높아진 經濟主體들의 적극성과 중국인의 전통적인 상인기질이 결합하여 무형적인 경제성장의 動力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中國은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과 투입요소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미래를 밝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경제개혁은 지금까지 國有企業, 財政, 金融 등 체제의 핵심부문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非國營企業 및 對外部門 등 체제 주변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성과를 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은 이제 이러한 체제 주변부문에 대한 점진적인 개혁에서 핵심부문에 대한 개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각종 부작용(예 :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分權化 改革에 수반된 경제적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여 시장의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즉, 각 지방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경제성장의 動力을 제공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적 시장분할, 과도 중복투자, 인프라 투자의 부족 등은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인구, 高度成長에 따른 인플레이, 광범한 부패와 이에 따른 사회적 질서의 혼돈, 지도자 계승에 수반될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 등이 모두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중국이 보여왔던 탄력적인 경제개혁의 추진, 天安門 사태나 蘇·東歐의 몰락과 같은 정치적 격변에 유연하게 대처해온 중국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中國은 앞으로도 최소한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과 성장을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地方分權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韓中 經濟交流의 現況

韓中間의 交易規模(直間接交易 合計)는 修交以前인 1991년에 이미 58억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다만 1980년대말까지는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이 중심이 되었고 그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직접교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1989~91

中國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推移
(단위 : %)

	1984~86	1987~88	1989~90	1991	1992	1993
GNP실질성장률	11.8	11.1	4.2	8.2	13.0	13.4
공업생산증가율	14.6	15.2	5.7	12.8	21.4	23.6
소비자물가상승률 ¹⁾	7.92	12.9	10.3	3.4	6.4	14.7
수출 증가율	11.7	23.9	14.3	15.7	18.2	8.0
수입 증가율	26.1	13.5	-3.5	19.6	26.4	29.0

註 : 1) 전국주민생계비 지수를 의미.

2) 1985~86 기간중 평균인.

資料 : 中國統計年鑑 1993.

단, 1993년 통계는 中國國家統計局 公報(1994. 2).

기간중에는 중국이 긴축과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중국수출이 정체한 반면, 수입이 급증하여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는 수출이 급증하여, 對中國直接輸出이 1992년에 26.5억달러(전년비 165% 증가), 1993년에 51.5억달러(전년비 94% 증가)에 이르렀다(〈表-2〉 참조).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에 3.5%, 93년에 6.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접수출을 포함할 경우 더 높은 수준에 이른다. 특히 輸出伸張寄與度(總輸出 증가분에서 對中國輸出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는 1992년 35%, 1993년 45%에 이르러, 중국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수출증가는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수교·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적 여건의 개선, 直接投資 및 賃加工 증가에 따른 設備·原副資材 수출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91년말부터 150% 정도를 나타내던 수출증가율이 최근에는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對中國輸入은 1992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1993년에는 39억달러(전년비 5.5% 증가)로서 총수입의 4.7%를 차지하였다(〈表-2〉 참조). 지난 2년간 대중국수입이 정체한 것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입의 정체, 중국경제과열에 따

韓中 交易推移

〈表-2〉 (단위 : 백만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對中國輸出 ¹⁾	437	585	1,003	2,654	5,151
전년대비증가율(%)	17.5	33.7	71.4	164.7	94.1
총수출중의 비중(%)	0.7	0.9	1.4	3.5	6.2
수출증가기여도(%)	-	5.6	6.1	34.7	44.6
對中國輸入 ¹⁾	1,705	2,268	3,441	3,724	3,929
전년대비증가율(%)	22.9	33.0	51.7	8.3	5.5
총수입중의 비중(%)	2.8	3.2	4.2	4.6	4.7

註 : 1) 本 表는 關稅廳의 通關基準에 의한 통계에 근거하고 있어서, 홍콩을 거쳐 재수출되는 間接輸出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對中國 總輸出중 간접수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資料 : 貿易協會 KOTIS.

른 수출여력 하락, 일부 농산물의 중국으로의 輸入先 전환 거의 완료, 조정관세 발동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1993년 말부터는 대중국수입증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交易商品構造를 보면, 먼저 주요수출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섬유류, 유류제품, 가축제품, 전자·전기부품 등으로 산업용 중간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철강, 석유화학제품(주로 합성수지), 섬유직물, 가축, 전자부품 등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종 수출품이 되고 있으며, 93년에는 자동차와 유류제품(경유, 방카C유)의 수출이 급증하여 새로운 주종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대부분의 수출이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것이어서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주요수입품목은 농산물, 섬유류(직물, 섬유사), 광물성 연료(석유·석탄),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一次產品 및 일부 산업용 원자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특히 옥수수), 석유·석탄 등의 一次產品과 纖維織物·絲가 총수입액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93년에는 섬유제품(의류), 생활용품 등 完成消費財와 전자부품의 수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수입품목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의 수입은 국내공급이 부족하던 90~91년 기간중 상당량에 달했으나 그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의 對中國投資는 1985년 홍콩을 경유한 迂廻投資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90년부터는 괄목할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92년 韓中修交 이후에는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海外投資 대상국으로 등장하고 있다(〈表-3〉 참조). 특히 1993년에는 중국이 허가기준 해외직접투자 총건수의 60%, 금액의 33%를, 실행기준 총건수의 55%, 금액의 21%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국투자는 1993년까지 누계로 1,042건, 9억6천만달러가 허가되어, 그중 646건, 4억7천만달러가 실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 통계는 상당수 존재하는 제3국경유 迂廻投資 및 未許可投資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¹⁾ 推移

〈表-3〉 (단위: 건, 백만달러)

구 분	1988~89	1990	1991	1992	1993	누적잔고 ²⁾
허가 기준						
건 수	14 (2.3)	38 (7.4)	112 (20.8)	269 (42.6)	629 (59.9)	1,042 (29.9)
금 액	13.2 (0.9)	54.5 (3.4)	84.7 (5.3)	221.9 (18.3)	622.4 (33.2)	960.0 (13.5)
건당평균규모	0.9	1.4	0.8	0.8	1.0	0.9
실행기준						
건 수	7 (1.6)	23 (6.8)	69 (15.2)	171 (34.2)	377 (55.3)	646 (23.7)
금 액	6.4 (0.8)	16.0 (1.7)	42.5 (3.8)	141.2 (11.3)	262.4 (20.9)	465.0 (8.6)

註: 1)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진 迂廻投資는 제외되어 있음.
 2) 누적잔고는 減資, 撤回, 清算 등을 제외한 것임.
 3) ()内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資料: 韓國銀行.

문에 실제 투자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우리 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중소기업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들어 대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존 투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對中國投資件數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총 해외투자허가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100만달러에 못 미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表-3〉 참조). 그러나 韓中修交 이후 삼성, 대우, 럭키금성, 선경을 포함한 大企業들도 電子(VCR, 전화교환기, 오디오), 시멘트, 자동차,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 이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는 중국측 투자허가의 제한(예: 승용차)이나 내수시장 진출의 제한(수출의무 및 통화의 不兌換性) 등을 들 수 있으며, 미래 중국의 불확실성(예: 鄧小平 사후의 격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投資業種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점차 資本·技術集約業種의 투자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투자는 기타제조업(완구,



가발, 악기, 스포츠용품 등), 섬유·의류, 조립금속(대부분 전자부품조립), 신발·가죽의류 등 노동집약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 비금속광물(시멘트 포함), 기계·장비 등 자본집약업종의 투자와 음식·숙박업 등 일부 非製造業 投資도 이루어져 최근들어 投資業種의 다양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지역에 있어서는 渤海灣 지역과 東北3省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점차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山東省은 총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투자지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어서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黑龍江省 등의 順으로 중요한 투자지역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廣東省의 경우, 홍콩 경유 迂迴投資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보다는 더 많은 투자가 행해지고 있으며, 華東地方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江蘇省을 중심으로 1992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投資形態에 있어서는 초기에 合資企業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 이후 경영권 확보의 차원에서 單獨投資企業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大企業들의 中國 內需市場 진출형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合資企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고 있다. 기존 대부분의 투자기업은 原副資材를 수입, 현지의 값싼 노동력·공장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1993년 初에 실시된 60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생산액의 약 85%가 수출되고 있음).

한편 貿易·投資의 증대와 더불어 다른 여러 형태의 교류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兩國間 인적교류의 급속한 증대, 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航空·海運 등 운송방면의 연계 증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과학기술 협력, 자원탐사 및 개발, 환경부문의 협력, 건설시장 진출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양국 경제가 광범위하게 상호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3. 向後 展望과 留意點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中間의 경제교류가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경제의 보완성과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경제는 要素賦存의 상이성, 經濟成長 段階의 적절한 차이, 지리적·문화적 隣接性 등에 기인

하여 높은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교류의 잠재성이 크다. 따라서 이미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양국경제간의 상호의존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양국간에는 交易及 投資 양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이 나타날 뿐 아니라 技術協力, 資源協力, 勞動力 이동, 觀光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호의존관계 심화에 수반하여 상대적으로 小國인 韓國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1인당 GNP나 1인당 貿易額은 아직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總GNP나 총무역규모는 이미 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그 성장률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적극성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協商力을 가지고 韓國과의 經濟交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이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순탄한 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15~20년 후에는 대부분의 產業에 있어서 상당 水準의 競爭力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 規模로 인하여 韓國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중국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한국경제가 이러한 여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韓中經濟關係형성에 있어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韓國은, 한편으로 技術·産業構造의 고도화를 통하여 중국과의 지속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창출해가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르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韓中經濟交流의 일선에 있는 企業들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中國 및 中國經濟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中國이 ① 體制改革過程에 있고 또한 ② 開發途上에 있는 ③ 大國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國이 體制改革過程에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

를 가질 수 있는데, 우선 각종 제도가 복잡·불투명하며 잦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제도보다는 人脈關係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黨이나 정부기관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외국인에 대한 二重價格의 적용, 분쟁발생시 객관적 해결절차의 미흡 등 국제적 관행에 어긋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勞勤人力의 기초소양(특히 기존 국영기업 종업원의 경우)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관계있다.

中國이 開發途上에 있다는 것은 전력, 용수, 운송, 통신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중국이 改革過程에 있다는 것과 맞물려 각종 지방행정기관이나 은행, 세관, 통신, 전력 등 관련기관들의 효율성이 매우 낮고, 또한 교통체제가 미비하여 납기, 품질 등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이나 판매대금회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중국이 大國이라는 것은 中國內 地域別 條件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혁과정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지역간 시장분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측이 시장의 잠재적 규모 등을 지렛대로 하여 각종 협상에서 높은 교섭력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이 평균적으로 저소득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계층만으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韓中經濟交流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韓中間 文化的 相異性에 대한 몰이해, 現地 經營人力의 양적·질적 취약성과 경영미숙에 따른 노사문제 발생, 조선족 교포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단순한 인맥이나 유행을 좇아 중국에 진출하는 행태, 人力 스카우트와 같은 先發 진출기업과 후발기업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인 中國進出을 추진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